

항공체험·역사투어까지...가족여행지 딱이네!

서울 강서구는 가족들이 부담 없는 반나절 또는 한 나절 시티투어를 하기 좋은 곳이다. 에코투어부터 문화역사투어, 어린이가 좋아하는 항공체험투어, 아트투어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런 관광자원들이 대중교통인 지하철이나 공항철도를 이용해 갈 수 있는 점이 매력이다. 마침 서울관광재단이 지하철로 과거부터 현재, 미래로 이르는 다양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강서구의 관광명소를 소개했다.

항공박물관서 아이들과 에어쇼팀 가상 체험 열대·지중해 도시 식물들 전시 '서울식물원' 정선박물관서 '금강전도' 등 정선 대표작 감상

●아이들 취향저격 체험프로그램 매력

국립항공박물관은 1층 전시관도 볼만하지만 아이들의 관심을 더 끄는 곳은 2층이다. 조종석과 관제탑을 재현한 공간에서 조작법을 배우고 관제탑과 교신하는 조종관제체험, 항공 승무원이 되어 항공기안전교육과 비상탈출훈련을 체험하는 기내훈련체험, 가상현실로 경량항공기, 패러글라이딩, 드론레이싱 등을 탑승하는 4D체험공간 항공레포츠체험, 국립항공박물관 캐릭터 나래의 안내로 공항 구조와 기능을 배우는 어린이공항 체험, 그리고 제트기 조종사의 시점으로 360도 회전하는 비행을 가상현실로 경험하는 공군 에어쇼팀 블랙이글 탑승체험 등이 있다.

블랙이글 탑승체험 외에 다른 프로그램은 국립항공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해야 한다.(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공항역)

●겸재 정선의 작품세계를 만나다

겸재 정선은 조선 진경산수화의 대표 화가다. 내금강을 그린 '금강전도'와 1000원 지폐 뒷면의 '계상정거도' 등이 그의 작품이다. 이곳에 정선미술관이 들어선 이유는 그가 1740년부터 1745년까지 양천현(강서구 옛지명) 현령을 지냈기 때문이다. 2009년 양천현이아지 인근에 개관한 겸재정선미술관에는 정선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시기별로 정리했다. 미술관 3층 출구로 나오면 공산으로 가는 길이 나온다. 10분 남짓 걸으면 정선의 작품에 등장했던 소악루가 나온다.

인근 양천향교는 서울시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향교로 서울시 문화재 기념물 제8호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서울식물원 입구를 지나 열대관으로 들어가는 동굴, 국립항공박물관의 블랙이글 체험, 겸재 정선의 작품에도 등장한 공산에 있는 소악루. (위부터 시계방향).

조용한 동네 골목길에 오붓하게 자리해 느낌이 남다르다.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1번 출구)

●서울 최초의 도시형 식물원

서울식물원은 서울 최초의 도시형 식물원이다. 열린 공원, 호수원, 습지원, 주제정원, 온실로 이루어졌다. 열대 및 지중해의 12개 도시 식물을 전시한 온실이 대표명소다. 온실의 절반은 열대관이고 나머지는 지중해관이다. 열대관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인도보리수, 베트남 하노이의 망고, 콜롬비아 보고타의 코코넛 야자, 브라질 상파울루의 빅토리아수련 등이 있다. 아마존 밀림을 재현한 상파울루 구간이 가장 면적이 크다. 지중해관에는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그리스, 호주,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우즈베키스탄의 식물이



서울식물원 입구를 지나 열대관으로 들어가는 동굴, 국립항공박물관의 블랙이글 체험, 겸재 정선의 작품에도 등장한 공산에 있는 소악루. (위부터 시계방향).

분포되어 있다.

8개의 주제로 이루어진 주제정원에서는 우리 정원 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만날 수 있다.(9호선 양천향교역 8번 출구,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3번 출구)

●건물이 하나의 예술품 같은 공간

스페이스K 서울은 마곡지구에 코오롱이 지난해 9월 개관한 미술관이다. 반듯한 사각형의 주변 건물과 달리 곡선으로 이루어진 모습이 눈길을 끈다. 75m 길이의 곡면 벽에 아치 형태로 뚫린 곳이 미술관과 공원을 연결하는 입구 역할을 한다. 24일부터 영국 출신의 개념 미술가 라이언 캔더의 개인전 '변화율'을 진행하고 있다. (5호선 마곡나루역 3번 출구)

김재범 기자 oldfield@dogna.com

여행

스포츠동아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15

KKday, 에버랜드와 한정판 필름카메라 출시



자유여행 액티비티 플랫폼 KKday는 에버랜드와 협업해 한정판 필름카메라(사진)를 출시했다. 지난 해 7월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판다 푸마와 최근 새롭게 리뉴얼한 사파리를 소재로 했다. KKday에서만 단독으로 판매하며 필름카메라 패키지에는 에버랜드 종일입장권도 포함됐다. KKday는 또한 에버랜드 '슈팅! 워터펜' 입장권을 구매객에게 페스티벌 필수품인 우비를 무료 증정한다. 우비에는 호텔 숙박권, 에버랜드 필름카메라, KKday 할인쿠폰 등의 경품에 응모할 수 있는 스크래치 복권 1매가 포함됐다.

소노호텔&리조트,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이벤트

소노호텔앤리조트는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 리뉴얼에 맞춰 경품 이벤트를 8월 말까지 진행한다.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소노호텔앤리조트 VIP 노블리안급 멤버십에 호텔식 고품격 서비스 및 식음, 골프, 승마에 특화된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리뉴얼한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 가입고객 중 추첨으로 2명에게 소노시즌의 400만 원 상당의 침구류를 증정한다. 또한 멤버십 고객에게 소노시즌의 매트리스 및 프레임 10%할인, 소노시즌 클리닝 키트 사은품, 추가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웨스턴 조선 서울, '올데이 다이닝' 리뉴얼



웨스턴 조선 서울은 '올데이 다이닝' 패키지를 리뉴얼해 9월30일까지 진행한다. 1박 투숙과 함께 뷔페 아리아나 이탈리아 레스토랑 투브리카를 선택할 수 있다. 아리아나는 점심 또는 저녁을 이용가능한 '어게인 아리아' 타입이고, 투브리카는 바비큐 플레이트 '서프 앤 터프'를 생맥주와 함께 제공하는 '루브리카 골든 나이트' 타입이다. 패키지는 디럭스부터 주니어 스위트 타입까지 선택 가능하다. 이그제큐티브 룸 이상 예약하면 웨스턴 이그제큐티브 클럽라운지 조식을 이용할 수 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서울언니들·덕질투어 등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27개사 선정

문체부·한국관광공사서 1억~3억 원 지원

동남아 여성관광객을 위한 K-뷰티&스타일 콘텐츠, 좋아하는 K-POP 스타의 방문지나 기념이벤트 장소를 소개하는 체험투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모한 '2021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사업에 최근 선정된 관광 스타트업 27개 사의 사업영역이다.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은 세계 관광시장에서 활약할 혁신적인 관광기업을 키우기 위해 민간 엑셀러레이터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27개 기업은 4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앞서 소개한 K-뷰티&스타일 콘텐츠의 '서울언니들', 플랫폼 기반

체험형 K-POP 투어의 '덕질투어'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여행 플랫폼 '알루', 관광도시 증강현실(AR) 플랫폼 '임퍼펙트' 등이 선정됐다. 전체 27개사 중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플랫폼 기업이 80%나 된다.

선정기업은 사업화 지원금 최대 3억 원(최소 1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민간 엑셀러레이터 씨엔터테크, 아셈벤처스 등이 사업 동반자로 참여해 싱가포르 등 신남방국을 우선 거점시장으로 6개월간 맞춤형 엑셀러레이팅 과정을 제공한다.

김재범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6월 25일 (금) 음력: 5월 16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청색 길박: 동	 소	행운색: 흰색 길박: 서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박: 남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박: 남	 용	행운색: 흰색 길박: 서	 뱀	행운색: 노랑 길박: 중앙
의욕이 충만하며 생각해보던 일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일을 마무리하는 날이다.	고귀할수록 비천함에 봉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 뛰어난 재능, 아름다운 용모는 겸허함으로써 더욱 빛나는 것이다. 매사에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면 안되며, 조용히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일을 마무리하는 날이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날이다.	사방이 위험으로 막혔기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이럴 때는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선택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필요하다.	승진 운이 있으니 말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거망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결박기엔 외롭지 않아 보이나 사실은 외롭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앞날을 개척하고 있는 모습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혼돈의 시기이다. 전환기와 같다.						
 말	행운색: 노랑 길박: 중앙	 양	행운색: 흰색 길박: 서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박: 중앙	 닭	행운색: 노랑 길박: 중앙	 개	행운색: 흰색 길박: 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박: 동
혁신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좋은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서둘러서는 마라. 과일이 익듯이 무리익은 다음에야 상대가 응해 온다. 거레에 있어서도 큰 건수가 들어온다. 이쪽은 강력히 밀고 나가도 괜찮다. 주변인의 도움이 예상된다. 횡재수가 있다.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날이다. 마음의 교류가 없이는 사회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마음을 바르고 끈게 가지면 이롭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쇠운의 극을 나타내는 기운이다. 함부로 안간힘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불이 멀지 않은 법이다. 사소한 일 때문에 송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오늘은 화개이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변화를 시도하려면 물기를 거둬라.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얹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라. 마음을 차분하게 간직하는 것이 대처법이다.	냉전 상태를 심각하게 물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장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신경이 예민해지는 날이다.						

오늘의 날씨				25일(금)			
서울	20/30	인천	20/30	춘천	60/60		
	20		19		19		
	27		25		28		
강릉	20/20	대전	60/60	전주	60/60		
	18		20		19		
	26		28		28		
광주	20/20	대구	60/60	부산	20/20		
	19		18		19		
	28		28		26		
창원	20/20	제주	30/3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18		21	최저	최저		
	26		27	날씨	최고기온°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07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동아일보사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성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